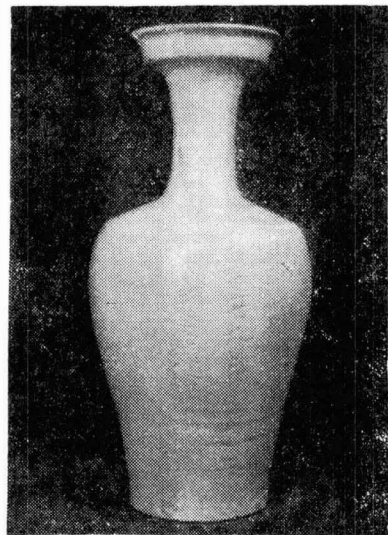


己丑銘青磁瓶

崔 淳 雨



요사이 서울 金元全氏의 蒐集中에서 「己丑九月 日造上 遠年使用瓶」이라는 陰刻銘의 青磁瓶이 調査되어 左銘 青磁의 좋은 例를 하나 더하게 되었다. 흔히 唐風의 鷄口瓶이나 치마瓶같은 것에서 그 類型을 볼 수 있는 넓은 입의 典雅한 酒瓶으로서 첫눈으로 십사리 이 병이 지닌 古格을 알아 볼 수가 있게 해준다. 釉色은 帶綠灰青色의 前期高麗青磁釉 特色을 잘 갖추고 있으며 胴體一部分의 釉色은 酸化되어 帶黃釉色을 보인 곳도 있고 施釉가 不足했던 적은 部分에서는 赭褐色을 보인 곳도 있다. 胎土는 精選된 淡灰色이고 釉水裂은 部分的으로 나타나 있으나 注意되지 않을 정도이며 대체로 青磁象嵌發生前의 青磁特徵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銘文의 刻字도 稚拙은 免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此種銘文中에서는 達筆에 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刻銘은 瓶의 날선한 形態와도 잘 어울린다. 象嵌技法發生前의 青磁時代에 屬하는 己丑으로는 尙宗四年(一一〇九)과 文宗三年(一一〇四九)의 두 해를 들 수 있으나 이제까지의 知見으로는 文宗三年은 아직 도 青磁窯技가 初期의 段階에서 脫皮되지 않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瓶에서 볼 수 있는 本格的인 이 釉胎로 보아 一〇四九年으로 보기는 힘들므로 따라서 睿宗四年(一一〇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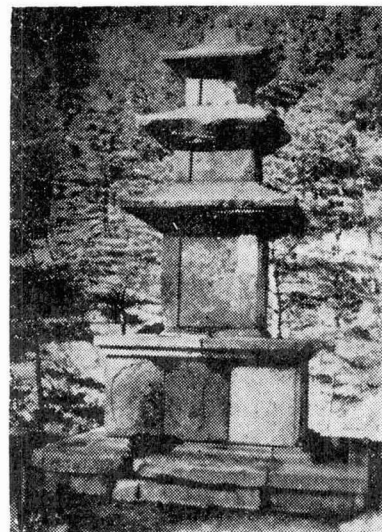
比定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즉 一一〇九 다음의 己丑은 象嵌全盛期라고 볼 수 있는 毅宗二十三年(一一六九)이므로 象嵌이 全盛하던 때에 象嵌장식도 없이 그 銘文조차도 陰刻銘으로 한 것으로 보아 毅宗二十三年이라는 推定을 세울 수 없고 瓶型으로 보나 釉胎로 보나 結果적으로 이 己丑은 睿宗四年(一一〇九)에 比定할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보면 이 己丑年 銘瓶은 淳化四年銘壺다음으로 오래인 紀年銘 青磁로서 이 瓶이 차지하는 位置는 자못 중요하다고 할만하다. 瓶의 全高는 二七·九cm에 最大胴徑은 一三·六cm 口徑이 八·九cm 底徑은 八·六cm의 크기로서 이러한 類型瓶 中에서는 날선한 體型을 지녔다고 하겠다.

致金藏寺址石塔復原에 對하여

洪 思 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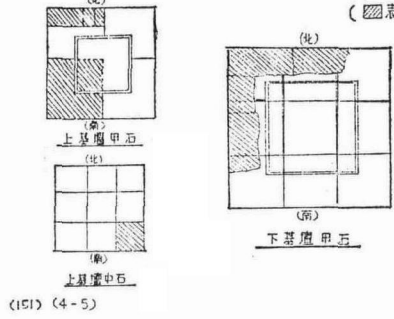
慶州市暗谷里所在 致金藏寺址에 있던 三層石塔은 從來 塔全體가 倒壞되어 그 全貌를 알 수 없었던 바 國庫로 復原工事が 秋期에 着工 十二月十三日字 竣工을 맞췄다.

其間 塔材가 어느 程度로 地上에 殘存한 것으로 알았던바 建立工事を 進行하면서 調査한 바에 依하면 塔身部에는 別다른 異狀이 없었으나 基壇部의 若干石材와 露盤 伏鉢이 全無함으로 不足材를



表石材新原塔石層三址寺藏蓋

(圖表) 新石材



新石으로補充하였는데 그位置를 아래에明記하여後考에供하는바이다.

基壇部에서下基壇甲石中에屏風石이서있는以外의甲石이西端及西北端이 끊어져서外觀上 그저 두기가不美하여新石으로四個甲石을補充하였으며屏風石에東南隅石이缺失하여新石으로補充하였다. 다시上臺甲石에도破損石이西南隅石에一枚와西北隅石에一枚가 있어서更新하였음을 말하여 둔다. 그리고上記한 바와같이露盤

及伏鉢은高仙寺址의 그것을模倣해서新石으로補充하였으나完全치는 못하였다.塔周圍는本來에流土로傾似面을 이루어 있으므로復原工事와同時에塔基壇一m幅으로平面整地하여流土防止에그쳤다.從來塔前에는石燈이있었는데石燈下臺石一個(完)가半以上地上에埋沒한것을整地한塔前左側に 놓았으며石燈蓋石이개울越便叢林에 묻힌것을塔前右側(南西)에運搬하였다.竿石과中臺石火舍石만있으면이것도復原시키는것이 좋을것같았다.

現塔의位置에서二段地上에는碑身이없는雙龜趺가前位置에있는듯한데碑座와螭首가分離해있는것을今次龜趺上에運搬하였다.螭首의一部分가破損流失되었으며龜部碑座四側에는前後에各四區左右側面에各二區의十二支像이있다.現在는風磨와雨洗로 또는靑苔로가득차서全貌가 잘들어나지않고있다.

塔總高(地上에서)十六尺三寸(新造伏鉢及露盤包含)

露盤及伏鉢高 一尺二寸

下基壇甲石各廣幅 十尺六寸

方壺子の弼雲臺圖

孟仁在

一 이弼雲臺의畫者는李朝後人으로만 짐작되고 있을뿐 그本名이나在世에關한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사람이다. 그의 그림에는一貫해서方子로만署名되어 있는 듯하며 그의本名을完全히 밝힌 그림은 아직본 일이 없다.國立博物館이나高麗大學校博物館에 있는 몇幅의 그림은 모두 그러하며款印도 보기가 매우어려운 듯하다. 이弼雲臺圖에는款印하나가 있으나 그의姓名을 알기에는不足한 것이며, 그姓氏를 모르는限이것으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짐작할 수도 없다.

그런데日前에斯界의劉某先生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本名이張始興임을 밝힌 그림이 있을 뿐 아니라 그在世에 관한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은 아직直接確認치 못한 것이므로 뒤로 미룬다.

二

弼雲臺를寫生한 그림은이미考古美術第一卷第五號에崔泳喜氏가『金吾詩帖』의謙齋畫、弼雲臺京師春色圖라는題名으로紹介한 일이 있다 이것은有名한鄭叡(一六七六—一七六九)의作品이며方壺子の것보다는 꽤 앞서는 것인데 이兩者 사이에는 서로 틀리는點이 있다. 即謙齋의視點은北에 있고方壺子の視點은南쪽에 있는 것과謙齋의臺는方壺子の것보다一段 높고 따라서前者의人物들은 위에、後者の人物들은 아래岩盤에 있다는點이다. 視點은勿論自由이니까 보는 사람의느낌만 틀릴 뿐이나前者가 위를 後者가 아래를臺로서 그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臺가 정말 어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한다. 이것은臺를 높은謙齋의畫面에서는高揚된 이미지를 그것을眼下에 낮추어擴大시킨 後者에서는一種의驚異를 느끼게 하는結果가 되게 한 듯하며 아울러 上下가